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58. 파세이그 델 본 (Passeig del Born)

우리는 육중한 나무에 철판을 맨 중세 스타일 성당 뒷문을 통해 산타 마리아 델 마르를 나왔다. 밖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 있었다. 어둠 속에 화려한 모양의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벽돌을 깔아 만든 넓은 길로 불어오는 겨울 바람에 웃음을 여민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중세 시대 돌 건물들이 들어차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

이곳은 간단히 줄여서 '엘 본(El Born)' 지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파세이그 델 본(Passeig del Born)'이라고 한다. 엘 본 지구는 중세시대에 '라리베라'로 불렸던 넓은 지역 중에 일부인데 그때부터 바르셀로나의 중심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도시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악명 높은 16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이단으로 몰린 수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처형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목격해 왔을 중세 돌 건물들은 구비구비 골목길을 이루며 끗끗하게 서 있었다. R과 나는 가로등이 훤히 켜진 골목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상점들과 카페들을 지나쳤다.

한 골목길을 접어 드는데 미술관 표지판이 나왔다. 무세오 피카소(Museo Picasso), 피카소 미술관이다. 피카소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 유명한 미술관이었다. 아치형 벽돌 골목길 안쪽으로 미술관 직원들이 서 있는 입구가 보였다. 마음 속에 잠깐 아쉬운 마음이 스쳤지만 우리는 그냥 건너뛰기로 했다. 폐관 시간 7시가 이미 코앞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렵겠지만 바르셀로나에 다시 돌아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꼭 와 보기로 했다.

피카소 미술관만 지나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페인 명품 플라멩코 쇼를 볼 기회도 지나쳤다. 피카소 미술관을 나와 걸어가는데 플라멩코 쇼를 하는 극장이 나왔다. 중세 시



대 나무문 위에 플라멩코 쇼 포스터가 걸려 있고 작은 쪽문 사이로 극장 안이 보였다. 잡시처럼 생긴 남자가 그 안에서 있었다. 극장 안이 텅 비어 있어서 물어보니 공연 시간이 한참 남았다고 한다. R과 나는 잠시 망설였다. 기다렸다가 보고 갈까? 우리는 지나치기로 했다.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해서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내일 몬세라트행 기차를 타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쇼를 보려면 저녁 식사와 주류까지 포함된 티켓을 사야한다고 하니 밤늦은 시간에 그것도 부담스러웠다. 플라멩코 쇼도 다음 기회에 보기로 했다.

우리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R이,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골목길이 거의 끝나거나 싶었는데 손님들이 와글거리고 가게가 하나 나왔다. 라 빠야레사 (La Pallaresa), 쿠로스 가게였다. R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쿠로스 먹고 가자! 오후 늦게 빠에 야를 실컷 먹어서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쿠로스는 지나칠 수 없었나 보다. 그래, 언제 또 오리지널 스페인 쿠로스를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자! 우리는 1947년 개업이라 써 있는 라 빠야레사 문을 열고 들어가 꽉 들어찬 손님들 사이를 뚫고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다.

이곳 쿠로스는 약간 더 살찐 모양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먹성이 좋더라도 그 통통하게 튀긴 탄수화물을 각자 일 인분 여섯 줄씩 먹을 엄두는 안 나서 들어서 쿠로스는 일 인분만 주문하고 핫 초콜릿은 한 잔씩 먹기로 했다. R은 핫 초콜릿 위에 생크림을 얹어 달라고 한다. 뜨겁고 쪽신품신하며 설탕이 반짝이는 쿠로스와 하얀 생크림을 둥개구름처럼 얹은 핫 초콜릿이 나왔다. R이 하하 웃었다. 그리고 흐뭇한 표정과 반짝이는 눈동자가 합쳐져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 되었다.

지붕에 관한 모든 공사

주택/ 상가/ 아파트



- 지붕 수리 & 재시공
- 깨진 기와 & 싱글 부분 수리
- 새 지붕 & 비 새는 지붕 공사

무료
견적

쿨루프서비스

Roofing Contractor Since 2007

Cool Roof Service

(213) 820-3789 (714) 224-8394

www.coolroofservicenet

- ★ OC 전지역 전문 부동산에이전트
- ★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 상담환경
- ★ 리스팅, 바잉 & 1031 Exchange 전문
- ★ 주택매매, 렌트, 커머셜, 비즈니스 및 인컴유닛 전문



제이 김

Jae Young Kim

C. 714.948.0638

뉴스타부동산 명예 부사장
Member of CAR
(California Realtor Association)
Member of NAR
(National Realtor Association)
DRE #: 02110841 Realtor®

Jaykim@newstarrealty.com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 가능

이민국(USCIS) 필수 예방접종 가능

독감예방주사 접종 가능

건강한 약국, 꿀약국!



꿀약국™

Honey Pharmacy®

Now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